제4회 송건호언론상 시상식

시상식

일시: 2005년 12월 2일 (금) 오후 6:30

장소: 서울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제4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 강 준 만

<송건호언론상>심사위원회는 강준만님을 제4회 <송건호언론상>수상자로 선정합니다.

강준만님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서 70 여권의 저서와 40 여권의 편저와 공저를 펴내며 저술활동을 활발히 벌여 온 언론학자이며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문제의식을 던져 온 비판적 지식인입니다.

그동안 강준만님은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세계의 대중매체 1~3> <대중문화의 겉과 속 1~2> 등의 저서에서 매체와 문화를 꿰뚫어 보는 안목을 제공했고, <권력변환: 한국언론 117 년사>·<한국현대사산책 1940 년~1980 년대> 등의 책을 통해 한국언론사와 현대사를 정리 기록하여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중매체·대중문화·역사 등 다방면에 걸친 이러한 시도는 사회·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언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언론연구의 지평을 넓혔고 학문의 대중화에도 이바지했습니다.

강준만님은 1997 년 <인물과 사상>을 창간하여 '언론비평'의 새로운 장을 열며 권력화 되던 언론을 견제했고 우리사회에 존재하는'부당한 차별' 과 '성역과 금기'에 도전하며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희망했습니다. 수상자 개인의 열정과 헌신에 힘입어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우리사회에 큰 울림이 되었고, 실명비판의 문화 속에서 생산적인 논쟁과 토론이 성숙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성실한 저술 활동을 통하여 언론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예리한 시각으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식인의 양심과 책무를 일깨운 강준만님의 활동이 고 송건호 선생께서 남기신 민족·민주·자유·비판 정신에 맞다고 판단하여 이 상을 드리도록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이 상이 지난 수년간 찬성과 반대, 비판과 비난 속에서도 현실에대한 고민을 늦추지 않은 수상자에게 격려가 되리라 믿으며 동시에 강준만님의 앞길에 무거운 책임감을 더하는 계기이기를 희망합니다.

2005년 11월 7일

제4회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정경희 언론인
위 원 이해동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위 원 김태진 도서출판 다섯수레 대표
위 원 방정배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위 원 이명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위 원 변동현 한국방송학회장
위 원 김영석 한국언론학회장

수상자 소개 – 강 준 만

강준만 (康俊晩) 님은 1956년 태어나 성균관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문화방송사 라디오PD와 중앙일보사 기자로 잠시 근무했습니다. 그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조지아대학에서 신문방송학 석사학위와 위스콘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주 전공 분야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1989년부터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심리학부 신문방송학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0여권의 저서와 40여권의 공저와 편저를 펴내며 언론・언론사・ 대중매체・대중문화 등의 분야를 연구한 언론학자이며 우리사회의 현상과 문제를 예리하게 관찰해 온 비판적 지식인입니다.

1997년부터 부정기 간행물 <인물과 사상> 그리고 1998년부터 월간 <인물과 사상>을 펴내며 우리사회의 '성역과 금기'에 도전한다는 자세로 언론・지식인・정치・종교・학벌・지역차별 등의 예민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준만님의 활동은 대중의 문제의식을 일깨워 토론과 논쟁이 활발해지는 데 이바지 했고 그 주장은 항상 사회적 반향을 불러 왔습니다. 강준만님에게 쏟아졌던 찬사・격려・지지 뒤에는 항상 비난・혹평・평가절하가 따랐기에 마음의 상처와 번민도 적지 않지만 이 때문에 스스로를 더욱 엄격히 되돌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외부활동을 줄이고 집・학교・개인작업실을 오가는 단순한 생활을 유지하며 연구와 집필에 전념하는 강준만님은 자신이 양심과 정당한 분노를 지켜려 노력하는 평범한 소시민이라고 밝힙니다.

일곱살 아래인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며 스스로 공처가라고 말하는 강준만님은 연구실에서 늦게 퇴근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두 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축사 -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이상희

<송건호언론상>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 제4회 <송건호언론상> 시상식장에서 청암선생과 맺은 인연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수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송건호언론상>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는 정보 자체가 통제되어 언론이 사실 그 자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고 언론인들이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고자 하면 억압과 위협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언론통제 속에서 언론인들이 붓을 꺾기도 하고 일정 부분 타협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경험했던 언론인들이 느꼈을 자괴감과 분노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언론자유가 신장되고 언론이 권력화 된다는 비판을 받기까지 하는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이 다가 왔습니다. 권력・재물・이권・접대・향응 등의 갖은 유혹 속에서 언론인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늘 깨어있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언론인이 일으킨 불미스러운 일들은 사회 구성원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지식인이며 사회의 지도층으로 여겨졌던 언론인들이 이제는 하나의 직업인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언론인의 위상이 흔들리는 요즘 청암선생이 더욱더 그립습니다.

혹자는 권위주의 시대가 끝난 오늘날 청암선생과 같은 지사형 언론인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는 재미와 가벼움을 추구하는 대중의 성향에 잘 맞추는 새로운 언론인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언론계를 지켜본 학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을 때 언론인이 정도를 걸을 수 있고 그래야만 언론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언론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격려가 필

요하다고 봅니다.

<송건호언론상>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은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룩한 분에게 보다는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될만한 분에게 수여되는 상이기를 바랍니다. 이 상의 존재가 언론인과 지식인들에게 하나의 경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우리 사회가 이 상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아끼고 가꾸기를 기대합니다.

수상자 강준만 선생은 수많은 저서와 <인물과 사상>을 펴내며 우리사회가 외면하고 덮어 두었던 지역차별・반공・언론권력・지식인의 책임・ 학벌문제・인맥사회 등의 민감한 문제를 논쟁과 토론의 광장으로 불러 냈습 깊은 통찰에서 나온 문제의식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의 탄성을 습니다. 강준만 선생은 성실한 학자이자 냉철한 언론인이며 열정적인 지식인이기에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강준만 선생은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여린 소시민일뿐이라고 했습니다. 청암선생도 참으로 여리고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께서 평생 양심과 지조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수상자 강준만님께서도 양심과 상식을 존중하는 지식인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남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수년간 강준만 선생에 대한 찬성・환호・격려 뒤에는 반대・비난・평가절하가 따라 다녔습니다. 이 상이 강준만님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적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고생이 컸을 가족에게도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저희 재단과 공동으로 이 상을 주최한 한겨레신문사 정태기 대표이사 그리고 청암언론문화재단의 든든한 지지자인 유가족 여러분의 후의에 깊은 감사의 정을 표시합니다.

멀리 충북 옥천에서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청암선생의 기념사업을꿋꿋이 펼치고 계신 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상의 심사를 흔쾌히 허락하신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는 청암선생님의 5주기를 맞이 하여 청암선생의 '평전'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평전 출판으로 인해 청암선생의 고귀한 삶과 정신이 언론계・학계 그리고 우리사회 전체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축사 - 고희범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고희범

청암 선생님의 뜻을 되새기며

오늘 청암 송건호 선생께서 남기신 고귀한 뜻을 되새기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많은 분들이 이 땅의 언론자유를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암울했던 시기 그분들의 온갖 희생을 무릅쓴 저항의 결과 오늘날 언론이 더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며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언론의 정도를 추구했던 고난의 행렬에는 항상 청암 선생께서 함께 계셨고 고비고비마다 보이신 그 용기는 좌절에 빠지기 쉬웠던 후배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언론이 정권의 통제 속에 침묵하던 암울한 시절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결성하시고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임을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으셨고 닥쳐오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침묵 속에서도 향기 그윽한 매화를 연상하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자유언론운동의 선구자로서 선생께서 보여 주신 삶에 비춰 볼 때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을 제3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지난 20년에 걸친 민언련의 활동은 우리사회에 몇 개의 큰 발자국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언련은 언론자유 신장에 앞장 섰습니다. 언론통제의 실상을 폭로하고 우리사회의 금기에 도전하는 등 언론자유의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언론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민언련의 공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언련은 언론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언론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충고자로서 언론이 스스로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밖에

시민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자각 아래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언론수용자의 비판의식을 일깨웠고 수용자 주권 의식을 높여 온 것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전신이었던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을 청암선생께서 이끄셨다는 남다른 인연을 생각할 때 오늘의 수상은 더더욱 뜻 깊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언론과 한국사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으로 어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민언련의 상근자와 든든한 지원자인 회원들께도 이 상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언론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본래의 뜻에 한치의 모자람도 없이 황성한 활동상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로서 3회를 맞는 <송건호언론상>이 수상자들에게 더 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되는 상으로 언론계에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강만길 재단 이사장님과 '송건호 언론상' 심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청암 선생님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빈께도 감사 드립니다.

축사 – 문영희 동아투위 위원장

강준만님의 수상을 축하하며

저희 동아투위는 강준만교수의 제4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강교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동시대인으로서 공감하는 바가 컸고,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데 대하여 늘 고마움을 느껴 왔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야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며, 하늘에 계신 송건호선생님도 아주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식인의 현실참여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풍조는 이조 유교사회의 폐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는 그 자체가 정치요, 지배논리요, 종교이기에 재야(在野)가 재조(在朝)를 비판하는 것을 원칙상 금지시켰습니다. 정치를 참여파들이 독점하려는 의지가 강했기에 그런 풍조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재조나 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양심적인 지식인은 재조에 있거나 재야에 있거나를 떠나서 잘못된 현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재조는 그런 비판에 대하여 귀를 열고 경청하고 수용해야 옳바른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건호선생님은 동아일보 재직시는 말할 것 없고 퇴직하신 이후에도 열심히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분을 20세기의 지성으로 우리 역사가 기록하고 후대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의 지식인관과 유지를 가장 충실하게 따른 후학이 바로 강준만교수라고 생각합니다. 강교수는 언론학자라는 상아탑의 울타리를 벗어나 이 사회에 대하여, 아니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또한 권력에 취한 듯한 민주개혁세력에 대하여도 할말은 추호도 아끼지 않는 21세기 지성의 표상이십니다.

강준만 교수는 호남을 너무도 사랑하는 보기 드문 지식인입니다. 강교수가 호남을, 호남인을 사랑하는 것은 비호남인들이 너무도 호남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호

남을 권력에서 배제하려는 비호남 패권주의자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남인이 정치적으로 약자이던 시절, 그들을 변호하는데 앞장 섰습니다. 그것은 약자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는 박애정신의 소산인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식인의 사명이라는 그의 철학의 산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반호남 그리고 반DJ현상과 처절하게 투쟁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런 점도 아주 존경합니다.

강교수는 문제가 보이는 것은 무엇이던지 고민하고 비판했습니다. 대중매체는 물론이고 대중문화 때로는 역사까지도 비판하는 용기의 지식인입니다. 그가 던지는 문제는 늘 비겁한 지식인들을 혼쭐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용기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굽힘없이 발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강교수에 대하여 ‘ 지난 수년간 찬성과 반대, 비판과 비난 속에서도 현실에 대한 고민을 늦추지 않은 것’ 이라고 지적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도 강교수의 용출하는 담론을 경청하고 애독하고 지지할 것임을 저희는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끝으로 청암언론문화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 강 준 만

겸손, 겸손, 겸손 이외에 무엇이 또 있을까요?

"격려와 채찍질의 뜻으로 알고 상을 받겠습니다." 늘 다른 분들 상 받는 구경을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을 땐 그런 말을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그 말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만, '격려와 채찍질'의 뜻이라 하더라도 이 상은 제게 과분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상을 받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건호 선생님을 개인적으론 알지 못했습니다만, 그 분의 사회적 의미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현대사와 언론사 공부를 할 때엔 그 분은 통찰을 제시해준 역사학자로 나타나셨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 거듭 나기를 열망했을 땐 온몸으로 그 길을 제시해준 언론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지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 앞에선 그 분은 범인으로선 너무도 따르기 어려운 길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거나 좌절케 했을 것입니다.

청암언론문화재단의 발족 선언문 제목은 "송건호 바이러스에 감염되자"였습니다. 과연 어떤 '바이러스'를 말한 것이었을까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송건호 바이러스'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겸손, 겸손, 겸손입니다. 의례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세술로서의 겸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뼈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본질로서의 겸손입니다.

한길사의 김언호 대표님은 과거 송건호 선생님의 강연 활동을 회고하면서 "개인적으로는 20~30년 어린 후배들에게도 늘 형이라는 존칭을 쓸 정도로 깍듯하고 부드러운 분이 어떻게 저처럼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놀라곤 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송건호 선생님을 몇 번 뵈었을 때 깜짝 놀랐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송 선생님의 겸손에 놀랐습니다만, 전 그 땐 그 겸손의 가치와 무게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보기 드문 미덕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후 김대중정권이 들어섰고 노무현정권도 탄생했습니다. 이 두 정권의 핵심 세력은 모

두 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고생했던 분들입니다. 저는 두 정권이 잘 되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고, 저는 사회과학도의 자세로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내내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겸손이었습니다. 두 정권 모두 겸손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겸손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겸손을 역설한 구절이 32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겸손의 실천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을까요.

우리는 송건호 선생님이 온몸으로 '언행일치'를 실천하셨고, 주변의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옳게 사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시밭길을 걸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실했고 용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정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겸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도 '겸손 코드'로 보고자 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해방정국의 역사도 당시 모든 이들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후로도 그런 '겸손 부재'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고, 오늘의 상황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뜻과 열망이 앞선 나머지 겸손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일을 할 때엔 겸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조차 내부 성원들 사이에서 묵묵히 빛이 안나는 곳에 임하면서 '겸손 바이러스'로 결속을 다져주는 사람이 없다면 출발조차 기대하기 어렵지요. 송건호 선생님의 업적은 바로 그런 역할에도 있었던 게 아닐까요?

겸손은 사회과학적 개념은 아닙니다. 유능한 사회과학자일수록 그런 개념은 피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저는 서구 사회과학의 틀과 개념만으로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해도 자신의 '인정 욕구'나 '도덕적 우월감'을 자제하는 겸손을 보일 때에 비로소 자신의 소신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서구 사회과학에선 찾기 어려운 답이지요.

저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 속이 상하거나 분노했을 때 그 이유를 잘 뜯어보면 그건 제가 겸손하지 못한 탓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에 대한 비판을 권리로만 알고 남의 비판은 의무로 받아 들이지 않는 이중성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려 들면서 자신의 허물은 망원경으로도 보지 않으려는 독선과 오만이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송건호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인은 형평의식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텍스트보다는 컨텍스트에 더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펴더라도 그 주장을 펴는 사람의 자격과 행실을 따집니다. 텍스트에만 주목해달라는 주문은 무력합니다. 텍스트 생산자의 독선과 오만은 텍스트를 죽입니다. 겸손으로 무장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성실과 용기와 책임감도 같이 생겨납니다. 사회 진보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무기로 겸손, 겸손, 겸손 이외에 무엇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송건호 바이러스'의 정체라고 믿습니다. 저는 '송건호 겸손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 일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감히 이 상을 받습니다만,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어쩌질 못합니다. 감사합니다.